

2025학년도 1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형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 03. 15(토) 14:00~ 15:20

출 제 자 : 홍승희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X	24년8모 - 문1 ⑤ 변형	대판 2023.6.29., 2022도6278
2	O	24년6모 - 문1.ㄱ.	대결 2023.5.18., 2022모1830,
3	O	24년10모 - 문1-⑤	형법 제1조 제3항
4	X	24년10모 - 문4 ①, ⑤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가 됨
5	O		부작위미수범에 대하여 실행착수시기에 대하여 최초의 구조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따르면 미수범이 성립하는 가장 앞당겨짐
6	O	21년(10회) 변시 - 문14. ㄷ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합
7	O	24년8모 - 문5. ㄹ	대판 2014.7.24., 2014도6206
8	X	24년(13회) 변시 - 문5. ⑤ 변형	대판 2021.1.28., 2020도2642
9	O	23년8모 - 문4. ②	
10	X	24년6모 - 문2. ② 변형	동일하게 파악함
11	O	24년(13회) 변시 - 문11. ⑤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판 2022.12.29., 2021도2088)
12	O	24년8모 - 문9.④	대판 2022.10.27., 2019도10516
13	X	23년8모 - 문5. ㄴ. 변형	대판 2006.9.8., 2006도148
14	O	22년10모 - 문4. ㄷ	
15	O	22년8모 - 문4. ㄷ.	대판 2003.5.30., 2002도235
16	X	23년(12회) 변시 - 문18. ③ 변형	대판 2021.11.25., 2021도10903
17	X	22년(11회) 변시 - 문7. ④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은 '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대한 것
18	O	20년(9회) 변시 - 문8 ②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대판 86도1724 전합
19	O	22년(11회) 변시 - 문7. ③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20	X	22년10모 - 문 6. ①	미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기수범의 고의가 요구되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원칙적으로 성립불가]
21	O	20년(9회) 변시 - 문9. ④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22	X	23년10모 - 문7. ②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판례는 단순히 피해자를 탐색하는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판 2021.3.25., 2021도749; 2017도12918)
23	O	23년8모 - 문8. ①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은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대판 1995.7.14., 95도885)
24	X	22년8모 - 문7. ③	극단적 종속형식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정범에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갖춰져야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함
25	X	24년(13회) 변시 - 문4. 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대판 1993.10.8., 93도1873)]
26	O	23년(12회) 변시 - 문6. ③ 변형	대판 2006.5.11., 2006도1663
27	X	24년6모 - 문6. ①	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합
28	X	21년(10회) 변시 - 문17-③	불법을 조각하는 신분(의사, 변호사, 재물소유자 등)이 불법이 성립되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인 공범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됨. 따라서 ㉠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함 - 표준 137: 대판 1986.7.8., 86도749)
29	O	22년6모 - 문 9. ⑤	대판 2018.8.30., 2018도10047
30	O	22년(11회) 변시 - 문4. ㄷ.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판 2006.11.23., 2006도5586)
31	X	21년(10회) 변시 - 문 10- ②	대결 1999.4.13., 99초76
32	O	20년(9회) 변시 - 문 6. ㄴ.	대판 1985.5.14., 84도2118 “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u>형법 제263조</u> 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33	X	23년10모 - 문10. ㄴ.	대판 2021.11.25., 2018도1346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34	O	22년10모 - 문11. ㄱ.	형법 제305조의3(예비·음모) 신설됨
35	X	24년6모 - 문10. ② 변형	대판 2003.5.13., 2002도7420
36	O	22년6모 - 문14.①	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37	O	23년8모 - 문11. ③	유죄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은 새로운 침입행위로 볼 수 있음(대판 2021.9.9., 2018도10255)
38	X	24년(13회) 변시 - 문13. ③	대판 2022.1.27., 2021도15507
39	O	24년(13회) 변시 - 문12. 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94도1487).”
40	O	22년8모 - 문11. ④	대판 2009.10.29., 2009도7052
41	X	23년8모 - 문12. ②	대판 2023.12.21., 2023도9792
42	O	23년(12회) 변시 - 문15. ㄷ.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보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대판 2000.4.11., 2000도565)
43	O	22년6모 - 문17.①	대판 1997.1.24., 96도1731
44	O	22년8모 - 문13.⑤	대판 2004.4.16., 2004도353
45	O	23년6모 - 문16. ①	대판 2001.6.15., 2001도6641
46	X	23년6모 - 문15. 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대판 2006.9.28., 2006도1545; 2005도6088; 83도2257)
47	X	23년(12회) 변시 - 문13 ④ 변형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 (대판 2011.11.10., 2011도10468)
48	X	22년(11회) 변시 - 문13 ①	대판 2017.3.15., 2016도19659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49	O	22년(11회) 변시 - 문13 ④	대판 2017.3.15., 2016도19659
50	O	24년8모 - 문7. ⑤	대판 2022.6.30., 2021도244
51	O	23년(12회) 변시 - 문20. ⑤	대판 2018.8.1., 2018도7293
52	O	22년8모 - 문16. ③	대판 2003.12.12., 2003도4533
53	X	24년(13회) 변시 - 문9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大判

			2008도2794),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大判 84도353; 大判 2004도2018). 따라서 甲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와 특수폭행죄(제261조)가 성립함
54	X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2004도5074, 전합)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함]
55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대판 2001.8.21., 2001도3447)
56	O		대판 2007.7.26., 2007도3687
57	X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됨
58	X	23년(12회)변시 - 문 40.	교사자가 단순히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 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12.11.15., 2012도7407
59	O		대판 2017도3045
60	X	21년10회변시 - 문 9	대판 2010.12.9., 2010도6256 -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u>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u> , 이러한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음